

아시아 3개국,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

베트남·필리핀·인니 대상
호남·제주 관광 15일 체류
공항 활성화·해외시장 선점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현지 모집 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 시 사증 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 운영 기간

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3년 호남권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광주비엔날레, 아태 마스터스대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와 무안국제공항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김 지사는 이후 지난 2월 베트남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나트랑에서 전남 관광설명회와 트래블마트를 열고,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와 연계 운항을 협의 중이다.

도는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와 함께 관광객 무단 이탈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 역할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된 현지 모집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무단이탈 가능성을 성실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탐승 방지에 노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청자 명단을 받아 입국자 동일 여부와 2차 허위서류 여부를 확인하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무안공항출장소도 입국심사

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단체관광객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나선다.

무사증입국 제도로 전남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의 발길이 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남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모집 여행사를 발굴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입소문 판매(바이럴 마케팅)도 전개할 방침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전남의 글로벌 브랜드 확립과 경제적 효과 제고, 국제선 운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대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해외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신혼부부 전세 이자 지원
시, 4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19일 “고물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 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길용현 기자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남도는 지난 17일 순천역 광장에서 도, 순천시, 순천국립관리소, ㈜숲속의전남, 임업인, 새마을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무등산 케이블카 논쟁 재점화

▶1면에서 계속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지역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가한 것과 관련,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수십 곳에서 케이블카 사업 추진 불이 우려된다고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의회는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명노 의원(서구3)은 “민선 8기 들어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맞물려 오색 케이블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시·기상 지금이 무등산 케이블카 공론화의 적기로 보인다”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쟁점이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무등산 케이블카를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만 아니라 한 번쯤은 제

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같은 상임위 최지현 의원(광산1)은 “국립공원 지정·관리 방향과 케이블카 설치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무등산의 고도나 탐방로 등을 따져봤을 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등산의 접근성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 상품 발굴, 교통 약자 편의 개선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개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무등산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자는 찬성 의견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케이블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도, 싱가포르·말레이서 글로벌 도정

문금주 부지사, 현지 방문

수출상담회·협약 등 진행

전남도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세계로 뻗어나는 전남 대도약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도정을 펼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20일부턴 2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중소기업·수출기업 상담회,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 부지사는 먼저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시장 개척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한다. 수출상담회에는 ㈜디엔티, 보향다원, 완도담 등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15개사가

참여한다.

이어 한국식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공급체인을 확보한 LNC사와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한다. 전남도는 향후 상설판매장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2일에는 케이(K)-스타트업센터 싱가포르를 방문해 전남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케이(K)-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외 진출 전략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영암에 본사를 둔 빈센트를 포함해 총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 부지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수산물 수출과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도움을 준 동포를 격려하고 25일 귀국한다. /정근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9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그린궁 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